

이기신 하나님 안에서는 만사형통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실은 이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고생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 상태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고로 고생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늘 쾌락 가운데서 살게 되는 고로 '고난풍파가 일지 않네~'하는 찬송가가 이 사람에게는 실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하는 찬송을 계속해서 불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고난풍파 속에서 살지만 이 사람만은 고난 풍파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서 사는 고로 늘 찬송가를 불렀던 거예요. 고난풍파가 일지 않는 가운데에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절대로 고난풍파 가운데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하면 고통스럽고 내가 행하면 걱정근심이 떠날 일이 없고 내가 행하면 뭐든지 되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실패하고 안 돼요. 내가 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성공하는 비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가능하고 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실제 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니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맘만 먹으면 돼요. 뭘 했다하면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할 때에도 이 사람이 항상 이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등하면 됐지, 이등을 해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니 일을 해도 잘하고 공부를 해도 일등하게 되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하고 이렇게 철학을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역사를 시작할 때에도 한 명도 없는 이런 광야에서 한 명, 한 명 모은 것이예요. 그러가지고 오늘날 이런 큰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한 푼도 이 사람한테는 없었어요. 돈

이 있어야 될 하지 마음만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에 내가 지으려고 했다면 이 건물이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지을 것을 나는 확신했어요. 그러나 통장에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냥 들어오면 억대로 들어와요. 이것 참말로 이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 때에도 440평 땅을 살 때에도 돈 한 푼 없는데 계약금이 어디서 날아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치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도금을 아무 아무 날 치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그 전날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참, 이것.. 사람 같으면 누구든지 이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또 치르고, 땅을 다 사놓으면 건물 지을 돈이 있어요? 누구하나 현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서 현금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일본을 건너가야 하겠다고 해서 일본에 건너간 거예요. 일본에 건너가서 이 사람이 전도를 시작을 하니 거기 일본에서 큰 돈이 현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 제단 식구들도 건물이 막 올라가니까 현금을 안 할 수가 없었니까 다 조금씩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것 없다

이 사람은 한 평생 무슨 체험을 했느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해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실하게 안 사람이예요. 영생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지지 않아요.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이예요. 아시겠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이긴자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기신 하나님이 아니면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정도령 자체가 이긴자 하나님이요? 정도령 자체가 이긴자 하나님이요, 생미복불 자체가 이긴자



구세주 조희성님

하나님이예요. 아시겠어요? 생미복불이 바로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지, 마귀를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미복불이 나와야 사람을 죽지 않게 하고 생미복불이 나와야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죽지 않는 방법을 논하죠?

내가 기도를 하면 마귀가 기도했다가 되어서 피가 계속해서 썩는 거예요. 그내가 걸어가도 피가 썩고 내가 세상 생활을 해도 피가 썩어서 결국은 꼭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걸로 행해야.. 하나님 안에서 밤을 먹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먹고 이제그대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생활을 해야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장에는 70% 이루어진 사람들이 30%가 있다

오늘 내가 공장에 가서 예배를 보면서 보니까 70%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30% 있었어요. 그러니까 70%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요? 공장에는 간질히 매달리는 식구들이 많아요. 이제그대로 자기의 집과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친구들 다 집어던지고 온 사람들이고

그러고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고로 이 사람이 늘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자신이 일을 하면 힘들어서 힘들고 지루해지고 짜증이 나고 할 때에는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재미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일이 이제그대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언제 일이 끝났는지, 작업 끝소리 나면, '야, 벌써 끝이 났어!' 할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봐라 하니가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게 되니까 그대로 재봉틀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소리로 들리고 이제그대로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작업을 하니가 작업능률이 오를까, 안 오를까? 능률이 오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전부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자기를 위한 일일까? 하나님의 일이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럭무럭 그 영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70%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30%, 그다음에 50%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다

음에 몇몇 수만 30%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바로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마는 이 사람은 사람의 그 이루어진 상태를 보면 70% 정도 이루어지면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하예요. 100% 이루어지면 얼굴에서 빛이 나올 정도예요. 100% 이루어지면, 50% 이루어진 사람은 얼굴이 하얗기는 하얀데 100% 하얗지는 못해요. 그다음에 30% 정도 이루어진 사람들은 얼굴이 누르티티해요. 그래서 30%로 이루어진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장 식구들처럼 다 이루어져 나가야 돼, 안 나가 이루어져 나가야 돼? 이루어져 나가야 죠?

영생이 이루어져야 종교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그랬죠? 또 학문도 없었다, 그랬죠? 진리구원이 종교요, 진리라는 건 안 변하는 거죠? 영생이 이루어져야 종교이지, 영생이 안 이루어지면 종교가 될 수가 없죠? 영생이 이루어지려면 성경에 구원론대로 살아야 되겠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 옛날에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이라는 말 속에 나라는 의식의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 마귀 영을 이겨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라는 의식을 이겨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고로 그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일반교회에서나 기독교에서는 이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치 아니하고 늘 마귀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약해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말이요.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죽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도 역시 구원론이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 자체가 내 안에서 행치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요. 하나님이 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이기는 하나님이 되어라, 그래서 나를 이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거지, 나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까, 모르는 사람이 어거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의 진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 말에는 현재 너희는 마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품으라고 하겠어요? 마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 속에 나를 이기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2001년 3월 14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5)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

르비딤에서 이말렉 족속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라오스산) 남쪽을 지나 시내산 동쪽에 위치한 시내(Sin)광야로 옮겨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산 즉, 시내산 돌레를 꼭 한바퀴 돌은 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하나님의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보았느니라.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서 계약을 지키거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너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훌륭한 민족이 되고 나의 보배가 되고 거룩한 민족

이 되리라.'라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사람들이 맹세한 것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만족해하시면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뽕뽕한 구름 속 가운데서 네게 임하리라. 그 까닭은 내가 나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게 하여 너를 언제까지나 믿고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그때까지 옷을 빨아 입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라.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이 산기슭을 돌아가며 표를 해 놓고 사람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말하라.

《6장 40년의 광야생활》

(5)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시내산(라오스산) 정상에 실제 모습은 여호와 불에 의해 검게 그을려 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이 산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 놓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일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

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산 위에 뽕뽕한 구름이 자욱하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장막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전체가 연기로 자욱한 산기슭에 세웠습니다.

그때 구름연기로 쌓인 산꼭대기에 불

덩어리가 나타나더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더 높아지고 길게 울려 퍼졌을 때, 모세가 말을 하니가 하나님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또 산이 연기 속에 자욱하게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심을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로 경외하여 범 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떨리서 있었고, 모세는 짙은 구름에 휩싸인 산 꼭대기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스라는데 필요한 율법을 모세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 있고, 칠 년이 되면 그 종은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인이 될 것이니라. 사람을 고의로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사람을 쫓아다가 팔거나 노예로 삼은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여야 하느니라. 너희는 나그네에게 친절해야 하느니라. 너희도 애굽에서 몸 불여 살던 나그네로 지낸 일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남편을 잃은 여자나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네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너는 죽고, 너의 아내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될 것이니라. 만약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 줬을 때,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그 돈을 이자를 붙여서도 안 되느니라."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